

2024. 1. 9.(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디자인재단 홍보팀

전시1팀

홍보팀장	권 희 대	02-2096-0020
담당자	이 강	02-2096-0028
전시1팀장	유 주 이	02-2153-0061
담 당 자	임 수 진	02-2153-0065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ddp.or.kr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8쪽

도시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DDP 미디어 전시

- 〈상실의 기록-소생하는 기억의 틈〉 전(展), 3월 31일까지 DDP 갤러리문에서 열려
- 시간/사건에 따라 변하는 도시와 그곳에서 경험한 기억들을 작품으로 탄생 시켜
- 동시대 경험 재구성, 전시를 통해 도시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길 희망

오는 3월 3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대표이사 이경돈, 이하 DDP) 갤러리문에서 〈상실의 기록 - 소생하는 기억의 틈〉 전시가 열린다. 전시는 도시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시간의 기록들을 보여준다.

○ 도시에서 경험한 감정은 지역과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실의 기억이다. 서로 다른 국지적 환경을 경험했던 작가는 이곳에서 느낀 감정으로 도시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전시는 각기 다른 도시 환경에서 경험한 기억들을 보여준다. 특히 전시공간에 설치된 오디오-비디오, 입체 형태의 다양한 오브제는 도시

이면을 조형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각 장소에서 시간이 흘러가며 발생하는 다른 ‘사건’을 두고 그 이면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했다.

- 전시는 사회의 구조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며 소멸하는 도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작가가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표현하기 위해 구현된 공간을 보여준다. 크게 3곳으로 나누어진 공간은 작가의 경험과 같은 시기를 경험한 도시인들의 기억이 맞물려진 작품들로 전시되어 있다.
- 첫 번째 공간 ‘세트1: 사소한 시간의 속성 SUBWAY LINES(철도교)’은 지하철 공간의 인간군상을 묘사한다. 지하철은 도시인들이 사소하게 경험하는 시간의 기억이 모이는 공간이다. 작가는 출퇴근하며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한 메모를 전시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철도교는 지하철에서의 ‘사소한 시간의 속성’을 담은 리얼타임 오디오-비디오 설치 작품이다.
- 두 번째 공간 ‘세트2: 원시적 열망의 환기 : 소생하는 기억의 틈 사이에’는 사회적 변화와 사건에 따라 변화하는 경험자의 기억을 오브제를 통해 구체화한다. 현대화된 역사적 장소와 공간, 이와 달리 오랫동안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를 통해 각기 다른 면을 보게 한다. 특히 일부 공간은 곧 철거를 앞둔 곳이다.
- 세 번째 ‘영상매체 설치 공간(상실의 기록, 오디오-비디오 연작)’은 도시의 이면을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추적한다.
- 작가는 도시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때때로 특정 장소에서 생기는 물질과 소리를 채집하여 가공했다. 작가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간을 기록하는 작업은 긴장과 환희가 교차하며 이루어졌다”며 “특히 공간 위에 켜켜이 쌓인 시간의 레이어를 재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전시는 역사적 공간 위에서 과거와 현재를 복기하고 그 경험의 기억을 관람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 붙임 1. 전시 개요
2. 전시포스터
 3. 작가소개
 4. 전시 구성
 5. 주요 작품 이미지

붙임1	전시 개요
------------	--------------

전시기간	2023. 12. 15. ~ 2024. 03. 31
관람시간	10:00~20:00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갤러리문
주최/주관/후원	주최:서울디자인재단 주관.기획:디아트랙처, 김재익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권	무료관람
문의 및 예매	T. 02)2153-0065

DDP 오픈큐레이팅 OPENCURATING vol.31

상실의 기록

소생하는

김재익 Kim Jaek

The Record Of Loss, Interstice of Reviving Memory

관람료 무료

AM 10:00 - PM 08:00

기억의 틈

2023. 12. 15
— 2024. 3. 31. (1.1 휴관)

DDP(Dongdaemun Design Plaza) 갤러리문

주최  서울디자인재단

주관·기획 디아트렉처, 김재익

후원  ARTS COUNCIL KOREA

- 김재익 작가는 장소 이면에 얽힌 가시적/비가시적 현상을 상상과 표현을 통해 소실되거나 훼손된 기억을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도시 사회 환경의 틀을 구성하는 특정 장소로부터 파생된 사건들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된 기억들의 레이어를 표현한다.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편입된 특정 공간 영역의 현상을 작가가 머무르고 있는 어느 공간 좌표 위의 시점에서 삶과 환경을 기록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미현迷眩의 공간 속에서 소생하는 기억의 틈으로부터 상실의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 각 도시영역을 구성하는 도시재료들을 통해 상실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기억의) 복원을 통하여 도시 공간에서의 상생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공간을 기반으로 진화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 공간의 영역 이면을 표출한다. 이것은 오랜 과거에서부터 축적되고 생성되었으며, 진화한 사건의 결과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축적된 경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 관련 누리집 : www.jaeik.art

□ INTRO

시간을 기점으로 변화한 도시공간의 실제와 상상 사이의 이중적 변주를 통해 기억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각 시대의 변곡점을 이야기한다.

□ 섹션 1 : 사소한 시간의 속성 SUBWAY LINES(철도교)

일상의 영역에서 매일 맞이하는 철도교, 지하철에서의 사소한 시간의 속성을 담은 리얼타임 오디오-비디오 설치 작품이다. 본 공간의 작업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소한 시간의 기억이 모여지는 지하철 공간으로부터 인간군상의 모습을 묘사한다. 공간의 기록은 작가가 매일 출퇴근하며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한 표현 자료를 기초로 전시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시각화한다.

□ 섹션 2 : 원시적 열망의 환기 : 소생하는 기억의 틈 사이에

사회적 변화와 사건에 유동하는 대지의 기억들을 오브제 설치를 통해 구체화한다. 현대화된 역사적 건축 공간의 모습, 이와 달리 오랫동안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의 모습들을 통해 숨겨진 영역의 이면을 바라본다. 특히 일부 특정 공간은 곧 철거를 앞두고 소멸할 예정인 곳이기 (이곳에서) 잠시 추억을 회상하면 어떨까.

□ 섹션 3 : 상실의 기록, 오디오-비디오 연작

도시 이면의 모습들을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추적한다. 각 장소에서 파생된 집합적 기억, 그리고 개별적으로 재구성되고 환기되는 물질-비물질 도시 세계 현상을 재현과 상상을 통해 혼합 표현한다.

붙임5

주요 작품 이미지

no.	이미지	캡 션	기타정보
1		<p>사소한 시간의 속성 SUBWAY LINES, 리얼타임 오디오-비디오 인스톨레이션, 가변크기, 철프레임에 혼합재료, 2023</p>	
2		<p>사소한 시간의 속성, 싱글채널 비디오, 69m 45s, 2023</p>	
3		<p>원시적 열망의 환기:소생하는 기억의 틈 사이에, 리얼타임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가변크기, 철 프레임에 혼합재료, 2023</p>	
4		<p>원시적 열망의 환기 - '실제와 기억 사이 147-23 회현시범아파트', 싱글 채널 비디오, 9m 37s, 철 프레임에 혼합재료, 채집재료, 2023</p>	
5		<p>순환하는 세계_The Circulating World 6pieces, 레진, 혼합재료, 가변크기, 2022~2023</p>	